

한·일 FTA체결이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Influence of FTA between
Korea and Japan on Tourism

김철원* · 이태숙**

【목 차】

I. 서론	V. 결론 및 정책제언
II. 이론적 배경	Abstract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V. 전문가조사 분석결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관세와 기타의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계약체결국 제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환경, 경쟁 정책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계약체결국간의 모든 교역에서 제거되는 것을 의미한다¹⁾. 한국과 일본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지역주의(regionalism)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국과 FTA를 적극 추진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컨벤션경영학과 교수

** 계명문화대학 관광레저학부 겸임교수

1) FTA는 GATT 제1조 최혜국대우(MFN : Most-Favoured Nation)원칙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며, 본 정의는 GATT 제24조 8항 (b)에 근거하였으나,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으로 확대하여 정의함 (김세영, 신상식(2003), pp21-22 참조).

하고 있다

한·일 양국간 FTA는 다른 지역과의 FTA에 비해 정치적, 역사적 장애요인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FTA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및 일본 기업간 경쟁관계의 해소와 전략적 제휴의 확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공동 대비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 통합에 대한 준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한·일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특히, Fukagawa (2000)는 한·일 FTA를 통해 양국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하면서, 한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으로는 첫째, 규모의 경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등 동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둘째, 일본과의 무역자유화가 시행되므로 무모한 중복투자 관행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며, 일본 입장에서는 첫째, 일본의 각종 금융자산, 기술자산, 기타 생산 노하우 자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FTA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둘째, 일본이 노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을 극복하고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적 타당성을 가진 한·일 FTA체결의 필요성은 2004년 12월에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재 강조되었다.

한편, 한·일 FTA체결과 관련한 기존연구들을 살펴보면,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대부분 제조업과 금융업을 포함한 일부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중요한 분야인 관광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에 있어서는 소홀한 실정이다. 그러나 관광은 세계경제 GDP 기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직접적으로 상품, 외화, 고용, 투자를 창출하고 타국 경제활동의 발전, 구조, 다양성 변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무역자유화는 관광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무역자유화의 일반적인 원칙은 무역협정 회원국들의 구조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이 요인들은 회원국들 관광산업의 경쟁력, 효율성, 수익성 제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는 사업목적여행과 휴가여행을 증가시키고 관광사업과 관광서비스교역부문에서의 투자성장을 가져온다.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를 비롯하여 많은 FTA의 사례들은 자유무역 협정 체결이 체결 당사국간의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관광서비스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2월에 체결한 미국과 호주와의 FTA에도 tourism flow와 투자에 크게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호주와 태국간의 FTA체결도 양국의 관광산업에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일간의 FTA 체결은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관광과 관련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국제수지 개선, 고용창출, 투자 확대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일 FTA 체결이 관광분야, 특히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한·일 관광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 FTA 체결이 관광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대응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사항을 도출하여 한·일 관광교류 확대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FTA 추진현황 및 관광산업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정책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부문의 FTA 대응전략 도출하고 한·일 관광교류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차 자료 분석(Secondary Data Analysis)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국가 산업연관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관광통계, World Bank Group에서 제공하는 사회·경제적인 자료, 외교통상부 등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교역 및 투자 현황, 일본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 등을 사용하였으며,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학계, 관계, 업계, 연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일 FTA체결에 대한 의견과 향후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Ⅱ . 이론적 배경

1. FTA의 개요

세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라는 표현은 지금의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이다(이홍배 외 3인, 2003). 1990년 이후 체결

4 · 관광식음료경영연구

되는 지역무역협정의 특징은 거의 모든 협정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FTA라고 하며²⁾ FTA는 관세동맹과 달리 역외 각국에 관하여 공통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역내 가입국간의 무역이 협상의 초점이 되고 있다. FTA는 GATT조항에서 정의한 상품의 범위를 넘어 FTA에 포함되는 내용이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그치지 않고 투자 및 환경, 노동 등 WTO 뉴라운드 협상의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분야에 까지 확대된다고 한다.

한편, 정인교(2002)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FTA대상국으로 일본과 미국이 가장 유망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다음으로 중국, EU, ASEAN이 유망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교역비중 및 보완성 면에서 일본, 중국과 미국이 가장 유망한 국가로 나타났고, EU는 내수시장, 교역의 보완성, 민간 분야에서 유리하나, 무역장벽 자체가 낮고, 제조업계의 관심이 낮아 FTA 체결 대상국으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은 민간 분야가 가장 낮고, 업계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FTA를 추진하기 쉽고, 또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였고,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외견상 EU와 FTA를 추진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EU가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단 기간 내에 EU와의 FTA체결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미국, ASEAN과 논의를 활성화시키며, 중기적으로 중국과의 FTA 체결과 동북아경제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FTA를 추진하는 당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계화 추세에 적극 참여

세계경제가 WTO라는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미자유지역의 경제통합 이전인 1988년 세계 총 교역 대비 NAFTA 역내교역 비중은 6.74%였으나, 10년 후인 1997년에는 8.83%로 상승하여 역내교역 비중이 31%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역내국간 교역의 확대로 역외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각 경제 블록 간 연계·통합이 이뤄질수록 우리나라가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2002)의 분석에 의하면, 만일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무역

2)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통보된 기준으로 보면 총 172건의 지역무역협정 통보 가운데 FTA로 분류되는 것은 113건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이홍배 외 3인, 2003, p.25 재인용).

협정의 체결 추세에 우리나라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다른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우리 경제는 매년 1.33% 성장감소와 344억 달러의 수출 감소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무역 이익을 보호, 확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2) 경제체질 개선

부존자원과 생산자본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악화가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대외무역기반의 확보가 절실하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FTA 체결은 필요한 정책이다.

우리나라 경제제도 중 일부는 국제규범과 합치하지 않아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유치와 교역에 장애물로 작용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경제제도의 불확실성이나 국제기준과의 불일치로 야기된 통상 분쟁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FTA 체결시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 분쟁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3) 통상마찰 해소 및 안보 정치적 측면

FTA를 체결하면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무역협정 가맹국들의 협조와 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나아가 회원국들이 의견을 같이하여 대외정책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국제협상무대에서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2. FTA 효과측정에 관한 선행연구

1) FTA효과 측정에 관한 문헌연구

1990년대 이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CGE 모형은 부분균형모형에 비해 FTA 체결이 주요 거시 및 미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이러한 CGE 모델에 대한 문헌연구를 살펴보면,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Whally(1985)는 도쿄라운드(Tokyo Round)의 합의안(proposals)을 평가

6 · 관광식음료경영연구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다지역 CGE모형을 사용하면서, 개별국가의 입장에서는 다자간 협정에 의한 관세인하 정책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일방적인 관세인하 정책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Deardorff & Stern(1986)는 도쿄라운드 합의안과 같은 관세인하 협정이 무역, 고용,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지만 개별국가의 일방적인 관세인하는 수입재의 국내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증가로 인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EFTA, NAFTA, AFTA와 같은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협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세계경제모형의 개발이 계속되어 왔는데, GTAP 모형이 이 과정에서 개발되었다. Hertel(1996)은 다부문 다지역 CGE 모형인 GTAP 모형을 이용하여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이운영(1990)은 1985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한국경제의 CGE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1989년 1월에 시행된 관세율 조정이 산업별생산, 수출·입, 물가지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동천·신승관(1995)은 199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한국의 국제무역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고, CGE 모형을 이용하여 1990년의 관세율을 25%, 50%, 100% 인하함으로써 각각의 시나리오를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정태분석 하였으며, 신동천(1999)은 제조업부문에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불완전경쟁 CGE모형을 설정하여 무역자유화(관세철폐)가 자원배분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완전경쟁 GGE 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비교하였다.

Cheong(1996)은 GTAP 모형을 이용하여 APEC의 주요 회원국에 의한 자유무역지대(Core APEC Nations FTA : CAN FTA)형성이 개별 지역의 사회후생, 국민소득, 그리고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오웅탁·정인교(1997)는 GTAP 모형을 이용하여 세계경제를 11개 지역으로 개별지역의 생산부문을 각각 9개 산업으로 구분하여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고, 정인교(1997a)는 GTAP 모형을 이용하여 APEC의 배타적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따른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박인권(2001)은 동아시아 국가 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그 추진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다부문·다지역 G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단독으로 ASEAN과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일본이나 중국과 함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중에서도 한·일 FTA보다 한·중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였다.

정인교·이경희(2000)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GTAP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에 따르면, 칠레와 FTA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경제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한, 정인교

(2001)는 GTAP모형을 이용하여 세계경제를 3개 지역(한국, 일본, 기타지역)으로 개별 지역의 생산부문을 20개 산업으로 통합 재분류하여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GTAP 모형에 규모의 경제와 자본축적효과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추정된 파라미터 값을 모델에 사용하였다. 그는 관세철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신동천·최세균(2001)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이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할 때 한국경제, 특히 농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2) 관광부문 FTA관련 문헌연구

관광분야에서 CGE모형은 호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관세인하에 대한 경제전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1970년 관광분야에서 최초로 적용된 CGE 모형은 IMPACT 프로젝트에서 CGE의 한 분류인 ORANI와 MONASH의 발전을 이끌었고, 그 후 1988년과 1989년도에 IAC(Industries Assistance Commission)에서 ‘Travel and Tourism’의 연구를 통해 CGE모형은 관광산업의 영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본격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CGE모형을 이용한 관광분야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호주에서는 CGE모형이 지방 정부 내, 지방정부간, 국제적인 관광활동의 증가에 대한 향후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Dwyer et al, 2004).

한편, CGE 모형은 호주 외에도 미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영국 등의 국가경제 및 하와이 등의 지방경제에서 관광의 경제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Blake Drubarry, Sinclair, & Sugiyato, 2000; Blake, 2000; Sugiyato, Blake & Sinclair, 2002; Zhao, Yanagida, Chakravorty, & Leung, 1997). 관광분야에서 CGE모형을 이용한 대표적인 연구는 Zhou·Yanagida·Chakravorty·Leung(1997)의 연구인데, 이들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의 관광소비지출의 감소가 하와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산업연관모델과 CGE모형을 비교하여 CGE모형이 더 현실적인 결과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CGE 모형은 자유무역 및 FTA에 따른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모델에서 고려되는 외생변수들과 생산의 대체 한계율이 한국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과 관광분야의 관련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관광분야의 FTA파급효과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3. FTA 체결로 기대되는 관광부문의 파급효과

WTO의 자료에 의하면, 양자협정, 소지역 무역 협정회원국들 내에서의 해외여행 수입은 GNP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제관광에 의해서 산출된 수입은 상품, 서비스 수출과 GNP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Andean 공동시장에서, GNP, 수출에 있어서 국제관광 수입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서반구에 대한 서비스 수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자유화의 영향은 그 국가들의 경제에 관한 관광의 상대적 중요성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북아메리카의 소규모 무역협정하에서 국제적인 관광수입과 관광객은 다른 무역 협정의 결과보다 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이 관광분야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들의 지리적 요인, 관광시설과 자원, 관광과 관계된 기구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관광과 국내경제의 무역자유화효과는 국제 관광 대비 지역간 관광의 상대적 중요성, 파트너 국가간의 지역간 관광시장의 구조와 구성, 관광이 국가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사회경제적 구조와 개별국가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Daniel Meyer krumholz, 1988).

한편, FTA 체결로 관광부문에 파급되는 기대효과는 첫째, 일자리 창출(FTA체결에 따라 교류가 활발해지면 관광객이 증가하여 호텔 및 여행업무 관련에서 일자리, 그리고 이에 관련된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발생됨), 둘째, 비즈니스 관광의 증가(SIT[Special Interest Tourism]은 더 많은 노동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전통적인 휴가 관광보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 셋째, 현금(통화)의 발생(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외화 가득율이 높아 현금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함), 넷째, 투자의 발생(새로운 투자는 주로 호텔, 모텔, 레스토랑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짐)으로 이러한 투자는 노동력의 지원과 지역을 위해 생성되는 직업에 의한 국가나 국가들의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다섯째, 무역의 발생과 소멸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자유화는 관광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관광활동은 자유화(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관광 서비스)의 수준, 경제적인 활동에서 비즈니스와 휴가 여행의 상대적 중요도, Inbound 관광과 Outbound 관광의 구조와 전체 국제관광과 역내관광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같은 여건들에 의해 달라진다.

4. 한·일 FTA 추진현황

양국간 FTA 체결 논의에 대한 정부 당국자의 공식적인 언급은 1998년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오구라 주한 일본대사는 1998년 9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월례 모임

에서 21세기를 향한 한·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한·일 FTA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는 세계통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반덤핑조치, 쌀 시장의 추가개방과 같은 국제규범을 형성하고, 양국의 경제적 연관성에 기초한 기업간 제휴를 확대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양국이 EU, NAFTA와 같은

〈표 1〉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

일 시	내 용
1998. 11	◦ 한·일 통상장관 회담시 FTA 추진에 관해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 합의
1998. 12~2000. 4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JETRO) 공동연구 시행
2000. 5. 24~9. 28	◦ 서울 및 동경에서 각각 심포지엄을 개최
2000. 9. 23	◦ 한·일 정상회담시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치에 합의 ◦ FTA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양국 경제인들의 의견 수렴 목적
2001. 3	◦ 양국의 비즈니스 포럼 대표, 위원 등 선정
2001. 9. 7~8	◦ 제 1차 양국 포럼 합동회의 개최(서울) - 한·일 FTA 추진여건 마련을 위한 업종별 협력 강화방안 등 논의
2002. 1. 25	◦ 제 1차 양국 포럼 합동회의 개최(동경) - 양국 FTA의 조기실현필요성을 천명하는 공동선언문 발표
2002. 3. 22	◦ 양국정상회담에서는 한·일 FTA 논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양국 경제계, 학계,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2002. 7. 9~10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차회의 개최(서울)
2002. 10. 1~2	◦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2차회의 개최(동경)
2003. 10. 20	◦ 방콕에서 양국 정상이 2003년 중에 정부간 FTA 체결 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
2003. 12. 22	◦ 제1차 협상개최(서울): 협상 추진체제 및 협상 일정에 합의 -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상호인정, 협력 분쟁해결의 7개 분과 설치 - 2개월 간격으로 양국을 번갈아 가면서 협상 개최
2004. 2. 23~25	◦ 제2차 협상개최(동경) 한·일 FTA가 궁극적으로 중국 등 제 3국에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우리측 언급과 관련, 일측은 우선 한·일 FTA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를 희망. 제3국으로부터의 우회수입 방지와 양국간 무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산지 규정 마련방안과 양국간 교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의 개선 전자 무역거래(paperless trading) 추진방안을 협의.
2004. 4. 26~28	◦ 제3차 협상개최(서울)
2004. 6. 23~25	◦ 제4차 협상개최(동경)
2004. 8. 23~25	◦ 제5차 협상개최(경주)
2004. 11. 1~3	◦ 제6차 협상개최(동경)
	◦ 농업을 포함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등 높은 수준의 FTA 목표 재확인(제2차~제5차 협상) ◦ 협정문 초안을 교환, 협의(제3차~제6차 협상) 우리측은 정부조달, 비관세조치, 위생검역 기술 장벽, 상호인정, 인력이동 경제협력 등 우리측 관심 사항을 적극 제기.

자료 : 외교통상부

지역협력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한·일 양국의 정부간 FTA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는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행동계획에서 이루어졌는데,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 FTA 공동연구 추진을 제의하였고, 양국 정부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무역진흥회(JETRO) 산하 아시아경제연구소(아지켄)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1999년 3월 일본의 Obuchi 총리를 방한하여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의 범위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000년 5월 KIEP-아지켄은 한·일 FTA 연구결과 1차 심포지움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2차 심포지움은 9월 동경에서 개최).

2000년 9월 김대중 대통령은 방일 중 양국간 FTA에 관한 민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쌍무적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기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와 IT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제의하였고, 양국은 이에 합의하였다. 2001년 상반기에 양국은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하였으며, 9월 7~8일 서울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동 포럼은 한·일 FTA가 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FTA추진을 위한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는 문제 등 한·일 FTA와 관련된 포괄적 이슈에 관해 심층적으로 협의하였다.

이와 같이 양국간 업계의 FTA 논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정부간 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03년 10월에 방콕에서 양국 정상은 2003년 중 정부간 FTA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2003년 12월 제1차 협상(서울), 2004년 2월 제2차 협상(동경), 2004년 4월 제3차 협상(서울)을 개최하였다.

5. 한·일 관광서비스 무역장벽(관광교류에 있어서의 장벽)

일반적으로 국가간의 관광교류를 제약하는 장애물이나 제약은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관광교류는 기본적으로 인적 이동을 통한 교류이므로 상품교역과는 그 성질이 다른 면이 있으며, 상품교역에 있어서는, 관세나 비관세장벽(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가격제한, 정부조달상의 제한, 기술 장벽, 투자 장벽)이 양국의 교역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반면, 관광은 인적 교류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므로, 여행객들의 비자발급이나 여행목적국의 통화의 가치 등의 고정적인 요인과 여행국에서 자국어 사용이 용이한지, 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여행이 불편하지 않은지 등의 여행편리성이 고려된다. 관광사업자가 상대국에서의 호텔, 레스토랑, 관광서비스, 카지노 등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는 투자 장벽, 세제부문의 항목들을 다룰 필요가 있다.

〈표 2〉 관광교류의 장벽

구분	주요내용
제도적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a 정책 - 국내관광기구의 구조 - 외국인의 고용규제 - 외국인 투자나 소유제한
행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발 승인이 오래 걸림 - visa 획득이 오래 걸림, - 정책의 편협한 임의해석
인프라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의 위치 및 규모 - 국경이동시설 - 고속도로, 다리, 배, 항구 등의 교통시설 - 오염관리체계
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과 관광사업으로 수납된 세금을 비 관광목적에 사용됨. - 항공여행관련세금

Ⅲ . 연구방법

본 조사는 관광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관계, 학계, 업계 등)들을 대상으로 한·일 FTA 체결이 관광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2004년 PATA한국지부 총회(2004년 4월 제주개최) 참가자와 한국관광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web-based survey)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시기는 2004년 12월 13~14일 양일간 총 12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집하였다. 조사내용으로는 한·일 FTA 체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 FTA체결로 우리나라 관광분야에서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한·일 FTA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 4항목, 한·일 FTA 체결시 예상관광객수와 관광분야에 예상되는 영향정도를 묻는 항목 25항목, 한·일 FTA체결을 대비와 수혜/피해산업을 묻는 항목 3항목, 인구통계학적 항목 3항목 총 35항목으로 구성되었다.

IV. 전문가조사 분석 결과

1.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57%가 '학계'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14.1%), 여행업(5.5%), 숙박업(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가. 한·일 FTA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에서의 한·일 FTA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긍정적 의견이 전체의 약 70%이상을 차지하였고, 평균값도 보통이상으로 한·일 FTA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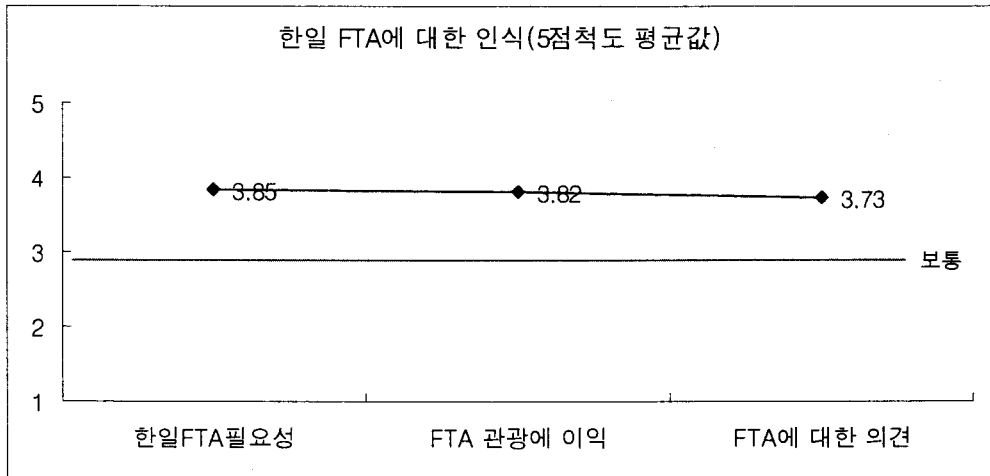
응답자의 소속 업종	구 성(%)
학 계	57.0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14.1
여행업	5.5
숙박업	5.5
컨벤션업	4.7
기 타	13.2
합 계	100

〈표 4〉 한·일 FTA에 대한 인식

한일 FTA에 대한 인식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값 5점척도
한일 FTA가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9	18.8	77.4	3.85
한일 FTA가 체결되면 관광산업발전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6	13.3	78.1	3.82
한국정부의 한일 FTA체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8.6	21.9	69.5	3.73

〈표 5〉 한·일 FTA에 예상체결년도

한일 FTA에 예상 체결년도	2004	2005~2006	2007~2008	2009~2010	기타
한일 FTA가 체결된다면 언제 체결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6	42.5	34.6	19.7	1.6



[그림 1] 한·일 FTA에 대한 인식

한·일 FTA가 체결시 적절한 시기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의 42.5%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체결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한·일 FTA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1~2년 내에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나. 한·일 FTA 체결시 관광분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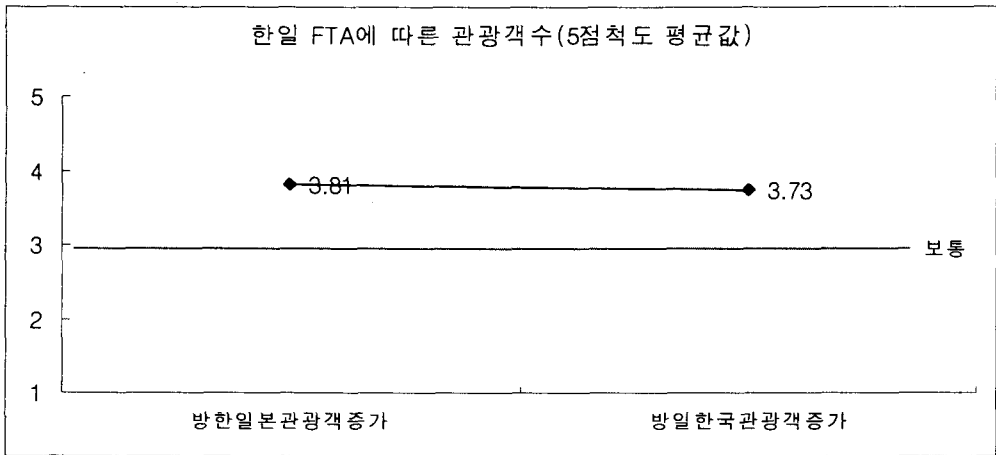
1) 관광객 수

한·일 FTA체결 시 방한, 방일 관광객 수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 방한 일본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76.3%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평균값(3.81)도 이러한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한편, 방일 한국 관광객 수 증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73.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방한 일본관광객의 경우 일반관광객과 비즈니스 관광객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표 6〉 한·일 FTA에 따른 관광객 수

한일 FTA 체결 시 관광분야 영향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값 5점 척도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방한 일본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19.5	76.3	3.81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방일 한국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4	17.2	73.4	3.73
체결 후에 방한 일본인 관광객이 몇 %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4.82%(평균값)			
체결 후에 상용(Business) 목적의 일본 관광객은 몇 %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7.32%(평균값)			



[그림 2] 한·일 FTA에 따른 관광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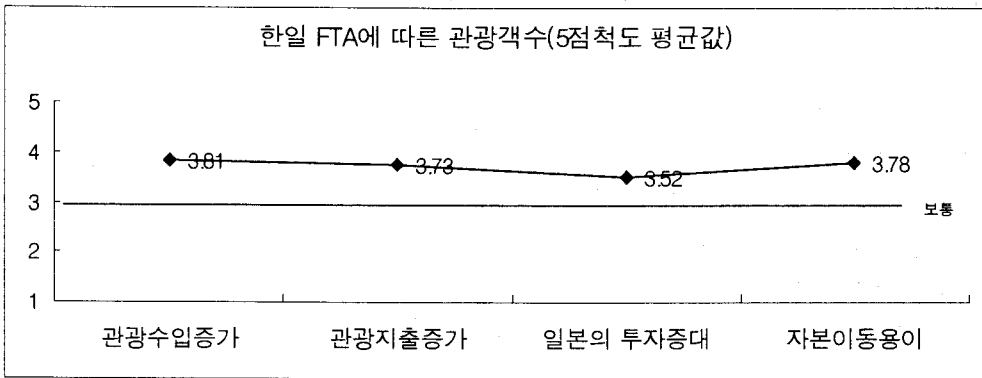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한·일 FTA 체결에 따른 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일반관광객보다는 비즈니스 관광객의 증가가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관광객의 증가 약 15%, 비즈니스 관광객 약 17%로 한·일 FTA가 체결되면 비즈니스 관광객이 일반관광객보다 2%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관광수지, 투자와 자본이동

한·일 FTA 체결시 관광수입, 관광 지출, 일본의 투자, 관광분야 자본이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광수입은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65.7%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5.0%)'와 '그렇지 않다(9.4%)'라고 응답을 보였으며, 평균값은 3.61로 분석되었다. 관광 지출에서도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표 7〉 한일 FTA에 따른 관광수지, 투자와 자본이동

한일 FTA에 대한 인식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값 5점척도
한일 FTA체결되면 관광수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9.4	25	65.7	3.61
한일 FTA체결되면 관광 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6.3	17.2	76.5	3.80
한일 FTA 체결로 인해 관광분야에 일본 투자가 증대되리라고 보십니까?	13.2	31.3	55.5	3.52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관광분야 자본이동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3.9	25.8	70.3	3.78



[그림 3] 한일 FTA에 따른 관광수지, 투자와 자본이동

65.7%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5.0%)’와 ‘그렇지 않다(9.4%)’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값은 3.61로 나타났다.

일본의 한국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55.5%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31.3%)’와 ‘그렇지 않다(13.2%)’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관광분야 자본이동에 대해서도 용이할 것이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70.3%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5.8%)’와 ‘그렇지 않다(3.9%)’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도 3.78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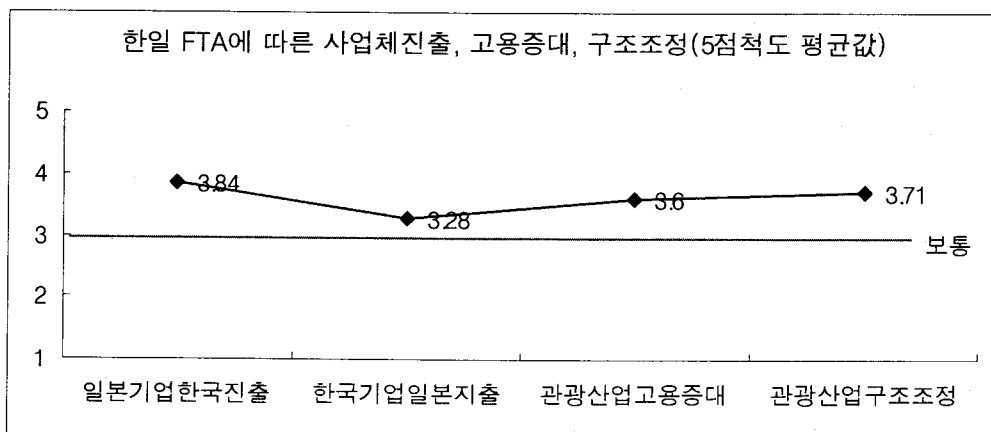
요약하면, 전문가들은 한·일 FTA가 체결되면 관광수입과 관광지출 모두 증가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또한, 한·일 FTA체결에 따른 일본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활성화 될 수 있으며, 특히 관광분야의 자본이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3) 사업체 진출, 고용증대, 구조조정

한·일 FTA체결로 인한 일본 관광사업체의 국내 관광사업 진출 및 고용증대, 관광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조사결과 일본관광사업체의 국내진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74.8%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19.5%)’와 ‘그렇지 않다(5.5%)’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값은 3.84로 이러한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또한, 국내관광사업체의 일본진출에 대하여는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43.2%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41.7%)’와 ‘그렇지 않다(15.8%)’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관광산업의 고용증대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61.4%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33.6%)’와 ‘그렇지 않다(4.8%)’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값은 3.6으로 분석되었다. 관광산업

<표 8> 한·일 FTA에 따른 사업체 진출, 고용증대, 구조조정

한·일 FTA에 대한 인식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값 5점척도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일본 관광사업체의 국내 관광사업 진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5.5	19.5	74.8	3.84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한국 관광기업의 일본진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15.8	42.2	41.7	3.28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관광산업의 고용증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4.8	33.6	61.4	3.6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관광산업 구조조정이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5	28.9	65.6	3.71



[그림 4] 한·일 FTA에 따른 관광수지, 투자와 자본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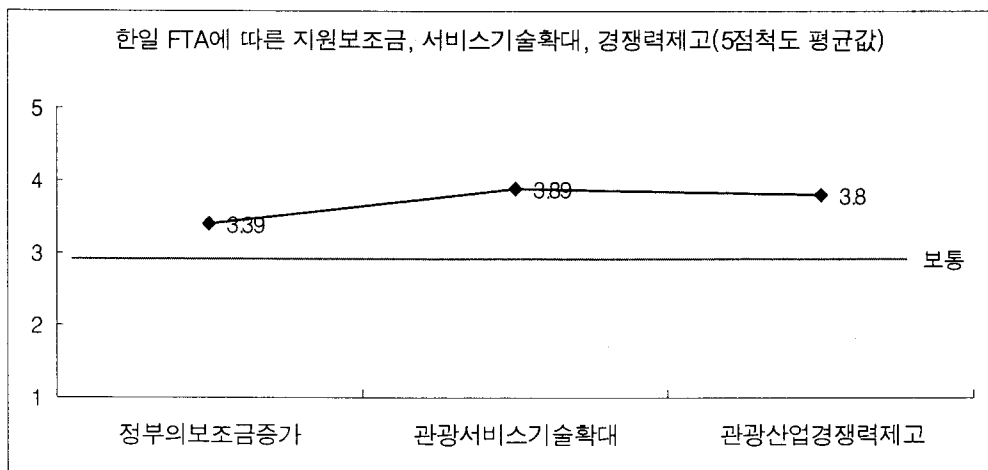
의 구조조정 확대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65.6%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8.9%)'와 '그렇지 않다(5.5%)'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값은 3.71로 나타났다.

4) 지원보조금, 서비스 기술 확대, 경쟁력 제고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정부의 관광분야 지원보조금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증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46.5%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41.4%)'와 '그렇지 않다(11.8%)'라고 응답하여, 응답자 100명 중 약 47명 정도만 한·일 FTA가 정부의 관광분야 지원보조금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산업 서비스기술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 결과 '그렇다'라고 긍정적

〈표 9〉 한·일 FTA에 따른 지원보조금, 서비스 기술 확대, 경쟁력제고

한·일 FTA에 대한 인식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값 5점척도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정부의 관광분야 지원보조금이 증대되리라고 보십니까?	11.8	41.4	46.5	3.39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관광산업 서비스 기술에 확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7	15.6	79.7	3.89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국내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3.9	23.4	72.7	3.80



[그림 5] 한·일 FTA에 따른 지원보조금, 서비스 기술 확대, 경쟁력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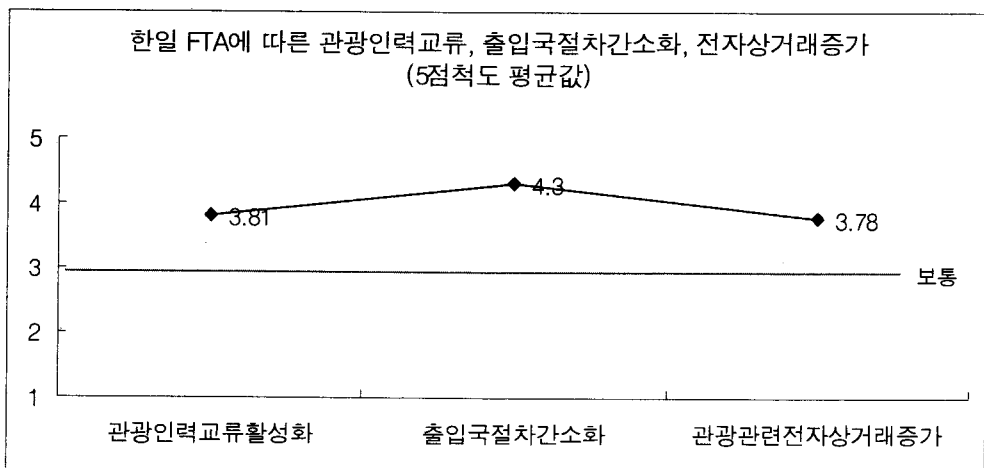
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79.7%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15.6%)’와 ‘그렇지 않다(4.7%)’라고 응답하여, 한·일 FTA 체결이 관광산업 서비스 기술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72.7%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3.4%)’와 ‘그렇지 않다(3.9%)’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일 FTA 체결이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관광인력교류,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증가

한·일 FTA 체결시 관광인력교류, 출입국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증가에 대해서 조사

〈표 10〉 FTA에 따른 관광인력교류,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증가

한·일 FTA에 대한 인식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값 5점척도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관광인력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4.7	21.1	74.2	3.81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출입국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8.6	49.2	42.2	4.30
한·일 FTA체결로 인해 관광관련 전자상거래 증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6.3	25	68.8	3.78



[그림 6] FTA에 따른 관광인력교류, 출입국 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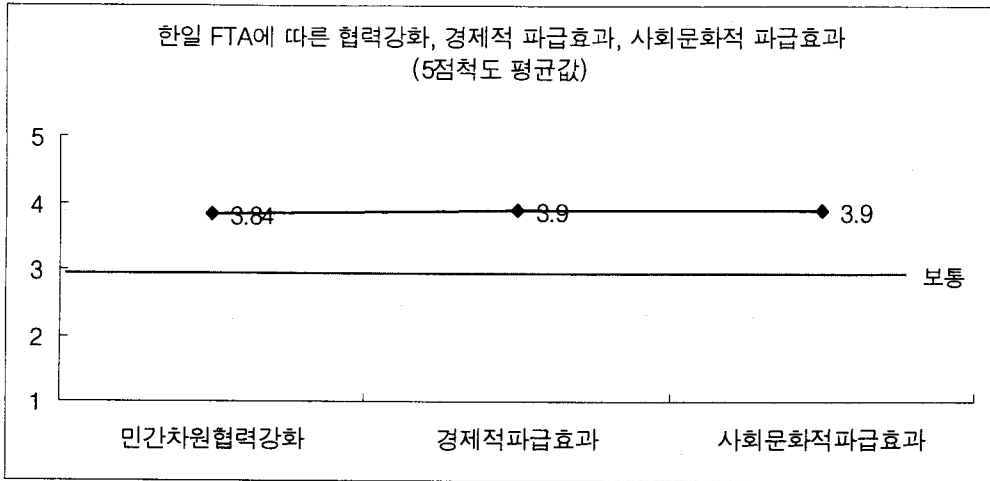
한 결과, 먼저 관광인력교류에 대하여는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1.1%)’와 ‘그렇지 않다(4.7%)’라고 응답하여, 한·일 FTA체결이 관광인력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균값(3.81)도 이러한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또한 출입국절차간소화에 대하여는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49.2%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42.2%)’와 ‘그렇지 않다(8.6%)’라고 응답을 보였으며, 평균값은 4.3으로 가장 높은 기대를 보였다. 전자상거래 증가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68.8%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5.0%)’와 ‘그렇지 않다(6.3%)’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일 FTA가 관광관련 전자상거래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3.78)도 이러한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6) 협력강화,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민간차원의 관광산업 한·일 협력강화에 대한 조사에서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73.4%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3.4%)’와 ‘그렇지 않다(3.1%)’라고 응답을 보여, 한·일 FTA체결이 민간차원의 관광산업 협력강화를 증대시킬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3.84)도 이러한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74.6%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2.7%)’와 ‘그렇지 않다(2.4%)’라고 응답을 보여, 한·일 FTA체결이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증대에 대한 조사결과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76.4%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0.3%)’와 ‘그렇

〈표 11〉 한·일 FTA에 따른 협력강화,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한·일 FTA에 대한 인식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값 5점척도
한·일 FTA체결로 민간차원의 관광산업 한·일 협력강화가 증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3.1	23.4	73.4	3.84
한·일 FTA체결로 관광산업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2.4	22.7	74.6	3.90
한·일 FTA체결로 관광산업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3.2	20.3	76.4	3.90



[그림 7] 한·일 FTA에 따른 협력강화, 경제적 파급효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지 않다(3.2%)'라고 응답을 보였고, 평균값은 3.90으로 분석되어 FTA 체결이 관광분야의 사회 문화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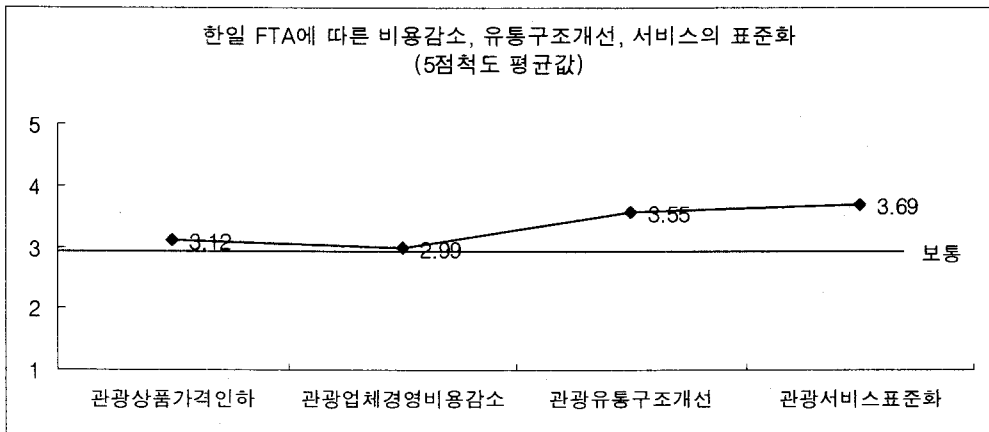
7) 관광상품 가격, 경영비용 감소, 유통구조개선, 서비스의 표준화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관광 상품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조사결과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46.9%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32.8%)'와 '그렇지 않다(20.3%)'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100명 중 약 33명 만이 한·일 FTA가 관광 상품의 가격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업체 경영비용이 감소에 대하여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41.4%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30.5%)'와 '그렇지 않다(28.1%)'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100명 중 약 30명 만이 한·일 FTA가 관광 상품의 가격인하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들은 한·일 FTA가 관광 상품이나 관광업체 경영비용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관광유통구조개선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63.3%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5.8%)'와 '그렇지 않다(10.9%)'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100명 중 약 63명이 한·일 FTA가 관광유통구조를 개선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평균값(3.55)도 이러한 의견을 잘 반영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광서비스의

〈표 12〉 한·일 FTA에 따른 비용감소, 유통구조개선, 서비스의 표준화

한·일 FTA에 대한 인식	부정 (%)	보통 (%)	긍정 (%)	평균값 5점척도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관광상품 가격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20.3	46.9	32.8	3.12
한·일 FTA체결로 인해서 관광업체 경영비용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28.1	41.4	30.5	2.99
한·일 FTA체결로 인해 관광유통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10.9	25.8	63.3	3.55
한·일 FTA체결로 인해 관광서비스의 표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7.1	26.6	66.4	3.69



[그림 8] 한·일 FTA에 따른 비용감소, 유통구조개선, 서비스의 표준화

표준화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26.6%)’와 ‘그렇지 않다(7.1%)’라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한·일 FTA체결 대비책 및 예상되는 수혜/피해 산업

1) 한·일 FTA체결에 대비해야 할 분야

한·일 FTA체결에 대비해야 할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43.5%가 ‘지원체제 마련’, 18%가 ‘관련법 개정’, 16.4%가 ‘부처간 협력’, 15.6%가 ‘업체M&A’, 2.3%가 ‘기타’로 응답하였다.

〈표 13〉 한·일 FTA체결에 대비해야 할 분야

구 분	응답자 수	구성비
지원체계 마련	58	46.4
업계 M&A	20	16
부처간 협력	21	16.8
관련법 개정	23	18.4
기 타	3	2.4
합 계	125	100

〈표 14〉 한·일 FTA 체결시 수혜 관광분야

구 분	응답자 수	구성비
숙박업	25	19.5
여행업	29	22.7
카지노업	17	13.3
휴양업	6	4.7
식음료업	4	3.1
항공업	45	35.2
기 타	2	1.6
합 계	128	100

〈표 15〉 한·일 FTA체결시 손해가 되는 관광분야

구 분	응답자 수	구성비
숙박업	15	12.8
여행업	22	18.8
카지노업	15	12.8
휴양업	33	28.2
식음료업	17	14.5
항공업	5	4.3
기 타	10	8.5
합 계	117	100

2) 한·일 FTA 체결시 수혜 관광분야

한·일 FTA 체결시 이익이 되는 관광분야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35.2%가 ‘항공업’, 22.7%가 ‘여행업’, 19.5%가 ‘숙박업’, 13.3%가 ‘카지노업’, 4.7%가 ‘휴양업’, 3.1%가 ‘식음료업’, 1.6%가 기타로 응답하였다.

3) 한·일 FTA 체결시 손해를 입는 관광분야

한·일 FTA 체결시 손해를 입는 관광분야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응답자의 28.2%가 ‘휴양업’, 18.8%가 ‘여행업’, 14.5%가 ‘식음료업’, 13.3%가 ‘카지노업’과‘숙박업’이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한·일 FTA체결은 2005년~2006년 사이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42.5%), 2007~2008년도 체결예상도 34.6%로 나타났다. 한·일 FTA체결로 인한 관광산업에의 영향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 한·일 FTA의 체결되면 방한 일본관광객이 증가하고, 체결년도에 방한 일본인 관광객 증가율은 15%정도 될 것이며, 상용관광객은 17%증가할 것으로 다수가 응답하였다.

또한, 한·일 FTA로 인해서 관광수입과 관광 지출이 증가하고, 국내관광산업에 일본의 투자가 증대되며, 자본이동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일본관광사업체의 국내 관광산업에의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일 FTA로 인해서 관광산업의 고용이 증대되고, 구조조정이 확대되며, 관광 서비스 기술과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관광인력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며,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한·일 FTA로 인해 관광관련 전자상거래, 민간차원의 관광산업의 한·일 협력, 관광산업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관광서비스의 표준화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관광 상품 가격인하나 관광업체 경영 비용감소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또한, 한·일 FTA체결로 가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항공업이며,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고 예상한 분야는 휴양업으로 나타났다.

2. 연구의 제언

한·일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관광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작

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FTA 체결로 인한 관광부문에 파급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FTA체결에 따라 교류가 활발해지면 관광객이 증가하여 호텔 및 여행업무 관련 고용이 증대될 것이고, 특히 비즈니스 관광은 더 많은 노동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전통적인 휴가 관광보다 일자리 창출하는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증대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외화가득율이 높아 현금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투자는 주로 호텔, 모텔, 레스토랑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투자는 노동력의 지원과 지역을 위해 생성되는 직업에 의한 국가나 국가들의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한편, 한·일 FTA 체결시 관광부문은 여러 가지의 서비스 부문(유통, 법률, 광고, 환경, 교육, 의료 및 사회, 에너지, 운송 등)중 한 분야로, 사실상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부문으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관광의 파급효과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서비스 협상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일간에는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관광교류에 있어서 양국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만큼 FTA체결을 통한 관광교류의 확대가 예상되며 양국의 관광교류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FTA 체결에 대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관광투자활성화 방안이 FTA체결에 대비하여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FTA 체결은 자본이동의 용이, 양국 관광기업의 진출 용이성 등으로 양국의 여행업, 휴양업, 카지노업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 FTA체결이 관광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FTA체결을 계기로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의 구조조정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업, 여행업, 숙박업에 대한 구조개편이 요구되고, IT를 활용한 e-tourism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정보업이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편입되어야 한다. 특히 FTA 체결은 여행업의 기회요인이기도 하나, 일본의 대형 도매여행사가 한국시장을 지배하는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한국의 여행사를 대형화하고 전문화시키는 구조조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밖에 문화, 영화 등 타산업과 연계성을 구축하여 포괄적인 cluster전략을 전개하고, 관광부문 고용 인력의 재배치 재교육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FTA 체결 시 관광산업의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으나, FTA의 영향력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CGE 모형의 활용이나, 다국적 산업연관분석표를 활용하여 일본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파급효과를 계량화하여 구체적인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n tourism and to suggest ways to increase tourists exchange between them by considering countermeasures of Korea's tourism based on the analysis and deriving political signific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xpected effects of FTA between Korea and Japan on tourism would overall be positive. There would be increases in employment and a higher rate of foreign-exchange earning,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cash flow. Therefore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prepare for several political measures as follows.

First, ways to promote investment in tourism have to be established in a systematic way for FTA. Second, restructuring of tourism has to be considered seriously for tourism to be a high value-added industry after FTA. Third, the tourism information industry needs to be included in the tourism promotion act to promote e-touris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addition to this, an expansive cluster strategy needs to be developed, which relates tourism to other industries like culture and movies and to find ways to re-locate and re-educate manpower currently engaged in the tourism industry.

Though the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FTA on tourism through a practical analysis, it was restricted only to Korea. So the influence of FTA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tourism of Japan should be included in further study. Furthermore, in subsequent studies the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ill be applied for objec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r measuring the ripple effect with multinational inter-industry relation table will be made for the study to make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y.

Key Words : *FTA(Free Trade Agreement),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참고문헌

- 김충실(2001). CGE모형에 의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효과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pp 438-45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전산업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2).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
- 문석웅(1998). CGE모형을 이용한 최신 산업연관표의 창출. 경제학연구, 제46집, 제1호 pp 77-108,
- 산업연구원(2003). 자유무역협정의 조문별 유형분석.
- 삼성경제연구소(2003). 한국의 FTA전략.
- 삼성경제연구소(2002). FTA시대의 개막.
- 신동천(1999). 국제무역의 연산균형분석. 세경사.
- 신동천·신승관(1995). 관세인하와 한국의 국제무역, 연세경제연구, 제2권 제2호, pp 195- 209.
- 오웅탁·정인교(1997). 동아시아내 자유무역시대 창설의 경제적 효과, 국제경제연구 제3권 3호, pp 65-89.
- 유길상(2004). GATS Mode 4 협상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연구, 2004년 6월.
- 이시영·전성희(2004). 한일FTA :비관세장벽과 피해산업. 일본연구논총 제19호.
- 정인교(1997a) CGE 모형에 의한 APEC의 배타적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경제학 연구, 제45권 제2호, 129-153.
- 정인교(200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연구, 6(2), pp 21-42.
- 정재호(2004). 한중일 FTA에 대비한 3국의 관세 비교분석. 재정포럼, 2004년11월호.
- 최환(2002). 금융연산균형모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한국관광연구원(2001).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 관광분야 대응방안 연구.
- 한국관광연구원(2002). 세계무역기구(WTO) 관광부문 양허요청안 작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은행(2000). CGE모형 구축을 위한 사회회계행렬(SAM) 작성방법 연구.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Daniel Meyer Krumboltz(1998).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its effects on tourism Seminar at Punta del Este, Uruguay.
- Deying Zhou, John F. Yanagida. Ujjayant Chakravorty, PingSun Leung(1997). Estimating Economic

Impacts From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24, No.1, pp 76-89.

Hertel, Tom(ed.), (1996)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Cambridge.

Larry Dwyer, Peter Forsyth, Ray Spurr(2004). Evaluating tourism's economic effects: new and old approaches. *Tourism Management* 25. pp 307-317.